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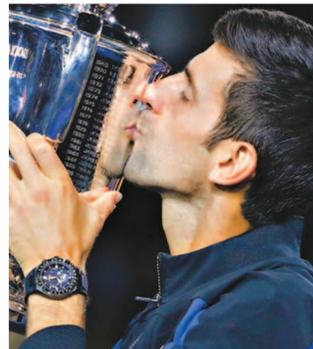
# '우상' 샘프라스와 어깨 나란히 한 조코비치

델 포트로에 세트 스코어 3-0 완승  
메이저 2연승...세계랭킹 3위 점프

전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31·세계랭킹 3위)가 개인 통산 14번째 메이저대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조코비치는 1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2018 US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의 델 포트로(30·4위)를 3-0(6-3 7-6(7-4) 6-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지난 7월에 열린 2018 윌블던 테니스 대회에 이어 또 하나의 4대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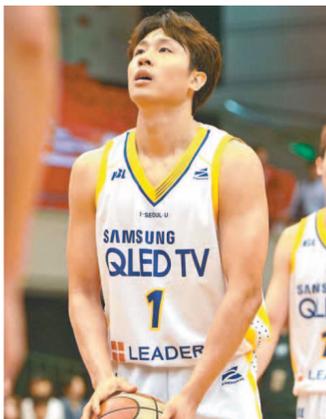
수집하게 됐다. 부상과 부진을 완벽하게 털어낸 모습을 보이며 무결점 테니스 선수의 부활을 알렸다. 세계 랭킹 역시 대회 전 6위에서 3위까지 끌어 올렸다. 첫 세트부터 조코비치의 흐름이었다. 3-3의 팽팽한 승부에서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지키며 델 포트로의 서비스 게임을 한 차례 브레이크 했다. 다시 찾아온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마무리하며 6-3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두 번째 세트에서는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했다. 델 포트로의 범실이 연이어 나오면서 조코비치가 조금씩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세 번째 세트에서는 특유의 끈질긴 수비를 앞세

워 델 포트로의 공격을 연이어 받아냈다. 여기에 장기인 백핸드 위닝샷까지 더해 챔피언십 포인트까지 직행했다. 마지막 포인트는 강한 스매시로 마무리하며 대망의 우승을 확정지었다. 조코비치는 이번 US 오픈 우승으로 14번째 메이저 대회 트로피 수집에 성공했다. 이는 역대 3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이다. 항상 자신의 우상이라 얘기했던 피트 샘프라스(14회)와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됐다. 조코비치보다 많은 우승 횟수를 기록한 선수는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0회)와 '빅4' 중 한명인 라파엘 나달(17회) 뿐이다.



노박 조코비치가 10일(한국시간) 열린 '2018 US 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뉴욕 | AP뉴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서울 삼성 주장 김태술은 이적 후 두 시즌 동안 축활만한 경기력을 펼치지 못했다.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든 김태술은 새 시즌을 앞둔 일본 오사카 전지훈련에서 주장다운 실력과 리더십을 모두 선보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서울 삼성

## “나보다 팀이 먼저다” 김태술 ‘캡틴의 품격’

“김주성 형이 롤모델” 팀 도우미 자처

서울 삼성 가드 김태술(34·180cm)은 일본 전지훈련에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7~8일 오사카에서 열린 B리그 얼리컵 2018 간사이 대회 두 경기에서 많은 시간을 출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몫을 다했다. 주장을 맡은 김태술은 가드 중심의 빠른 농구로 새롭게 무장하고 있는 삼성의 중심축이다.

전주 KCC에서 삼성으로 이적한 이후 두 시즌을 소화한 그는 꾸준함을 선보이지 못했다. 2016~2017시즌은 정규리그에서는 경기 평균 7.45점·5.3어시스트로 좋은 페이스를 유지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부상이 겹치면서 득점과 어시스트가 뚝 떨어졌다. 2017~2018시즌에는 정규리그에서 전 경기를 뛰었지만 평균 6.63점·3.7어시스트로 개인 기록은 다소 하락했다. 크고 작은 부상이 계속된 탓이지만 스스로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부상 때문만은 아니다. 시즌을 치르면서 아프지 않은 선수는 거의 없다고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농구를 제대로 못한 탓이 크다”며 “다가올 시즌은 내 장점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 더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다. 특히 팀에 어린 선수들이 많으니 분위기를 잘 때가 있다. 이럴 때 경기를 조율하는 등 코트 안에서 팀을 정비하는 게 내 몫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김태술은 이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아닌 것 같다. 팀이 더 좋은 성적을 얻고, 팀 동료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나의 역할인 것 같다”고 베테랑의 품격을 드러냈다. 또한 “은퇴 전(김 주성)이형을 보면서 앞으로는 후배들이 좀 더 편하게 농구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 팀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더 집중하면서 잘 준비해볼 계획이다”라고 다짐했다.

오사카(일본)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리버맨 아가메즈(왼쪽)가 돌아왔다. 우리카드 유니폼을 입고 V리그에 4년 만에 돌아온 아가메즈는 10일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18제천·KAL 코보컵 삼성화재전에서 30득점을 몰아쳤다.

사진제공 | KOVO

## 돌아온 아가메즈, 강서브가 살아있네

30득점 폭발·서브 에이스만 6개  
우리카드, 삼성화재에 3-1 승리



10일 제천체육관에서 벌어진 2018제천·KAL 코보컵 제1경기의 키워드는 리버맨 아가메즈였다. 우리카드 선수로 4년 만에 V

그에 컴백하는 그가 어떤 활약을 할지 궁금했다. 다른 팀 감독들도 경기장에 모여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에서 첫 번째 지명을 받은 아가메즈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삼성화재를 상대로 아가메즈는 4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높은 타점과 파괴력을 보여줬다. 1세트 혼자서 11점을 몰아내며 공격을 도맡아 했다. 3개의 서브 에이스와 2개의 블로킹까지 결집했다. 현대배구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서브에서 능력을 잘 보여줬다. 당초 이탈리아 트리아아웃 패신영철 감독은 삼성화재의 타이스를 영입 제1순위로 생각했다. 기대주 나경복을 라이트로 고정하고 레프트 한자리를 타이스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의 선수구성이라고 판단했지만 최종선택의 순간에 아가메즈로 마음을 돌렸다. 신영철 감독이 변심한 이유는 서브였다. 아가메즈의 강서브에 비해 타이스는 서브가 약하고 범실도 많다는 판단이었다. 우리카드의 모든 코치들도 생각이 같았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아가메

즈는 세트스코어 3-1(25-17 22-25 25-23 26-24)로 승리한 첫 경기에서 30득점(5블로킹 6에이스)을 기록하며 경기 MVP에 뽑혔다. 블로킹과 서브는 만족스러웠지만 공격성공률이 43%에 그친 것은 아쉬웠다. 삼성화재는 FA영입선수 송희재의 가세로 공격용선이 이전보다 늘었고 새 리베로 김강녕과 군에서 복귀한 지태환, 주전세터로 낙점한 김형진의 역량을 확인한 것이 성과였다. 송희재는 20득점으로 군인대환 류운식의 공백을 메울 확실한 카드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김준권 전문기자 marco@donga.com

## 엎드려 썩! '육군하사' 배소희, 금메달 쫓다

창원세계선수권 300m 소총복사 김준홍, 25m 속사권총 2연패 실패



'현역 육군하사' 배소희가 10일 경남 진해해군사격장에서 열린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300m 소총복사 여자부에서 깜짝 금메달을 따냈다. 사진제공 |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대한민국 육군하사 배소희(25·국군체육부대)가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배소희는 10일 경남 진해해군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300m 소총복사 여자부에서 592점을 쏘며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엑스텐(10점 원의 선에 닿지 않는 격발)은 31개. 엎드려 썩(복사) 자세로 1시간 동안 60발(총 600점)을 쏘는 300m 소총복사는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결선 없이 본선만 치르는 형태로 대회를 진행했다. 배소희는 1~3시리즈에서 99점씩 획득했고, 4시리즈를 100점을 쫓았다. 5시리즈 99점에 이어 최종 시리즈를 96점으로 경기를 끝내 2위 예바 로에스켄(독일·588점), 3위 슈나이더 실비아(스위스·586점)를 따

으나 엑스텐 개수(67개·스위스 60개)에서 앞서 2위에 올랐다. 1위는 독일(1748점·엑스텐 63개).

중학교 때 처음 사격에 입문한 배소희는 “연습에서 기록이 잘 나왔다. 솔직히 기대를 어느 정도 했다”며 “평정심을 잃지 않고 경기를 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현역 부사관인 배소희의 다음 목표는 2020도쿄올림픽 출전. 장기 복무를 지원할 정도로 군 생활에 애착이 큰 그녀는 “사격선수로 꾸준히 활동하고 싶다. 올림픽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50m 소총 3자세에서 올림픽 출전을 꿈꾼다.

한편, 4년 전 그라나다 대회에 이은 세계선수권 2연패를 노렸던 김준홍(28·KB국민은행)은 25m 속사권총 남자부에서 6위에 그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황원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창원세계사격선수권이 마지막 '친한파' 라냐 ISSF 회장 은퇴

(국제사격연맹)



라냐 ISSF 회장

국제사격연맹(ISSF)을 레가리오 바스케스 라냐(83·멕시코) 회장이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끝으로 공식 은퇴한다. ISSF는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라냐 회장의 은퇴 행사를 열었다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10일 발표했다. 1964도쿄부터 1976몬트리올까지 4회 연속 올림픽 사격선수로 출전한 라냐 회장은 1980년부터 ISSF 회장을 맡아 38년 동안 활동했다. 라냐 회장은 “ISSF와 세계 사격의 발전을 위해 힘쓴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는 퇴임사를 전했다. 라냐 회장은 한국 사격과도 인연이 깊다. 각종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올려온 한국에 세계사격선수권 유치를 먼저 권유한 것도 그이다. 2011년 유치전에 뛰어난 창원은 이듬해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SSF 총회에서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황원 | 남정현 기자